격랑의 중동…석유화학 몰린 여수산단 비상

당장은 원유 수급 문제 없지만
국제유가 상승 불러 기업 악재
호르무즈 해협 봉쇄땐 직격탄

8일(현지시각) 이란이 미국을 상대로 '피의 보복'에 나서면서 중동 의존도가 높은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석유화학 기업들이 '중동발 리스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수 국가산단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석유화학 기업 120개사가 밀집한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비상이 걸렸다. 이란이 미국을 상대로 '피의 보복'에 나서면서 중동 의존도가 높은 여수산단 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8일 여수산단 내 석유화학업계에 따르면 GS칼텍스는 국제유가와 원유 수급 차질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이날 새벽 이란이 이라크 미군기지를 공격했다는 소식에 사태 파악과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당장은 원유 수급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낮은데다 비축유도 상당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란이 중동 내 미국 우방국의 석유시설을 공격하거나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하는 최악의 카드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다.

미국의 이란 경제 제재로 한국은 지난해 4월 이후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라크에서 들어오는 원유 물량은 전체의 10.9%에 달한다. 만일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운항을 통제한다면 국내 산업계가 도미노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호르무즈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 사이의 바닷길로 세계 원유 하루 물동량의 20%에 달하는 1700만배럴이 지나가는 길목이다.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원유 80%는 한국·중국·일본 등 아시아로 공급된다. 특히 한국은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70.3%에 달하며 이 물량의 대부분인 97%가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한다.

LG화학·롯데케미칼 등 석유화학 기업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수급 문제로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중동발 불안은 국제유가 상승을 불러 석유화학 기업에는 악재로 작용하는 탓이다.

한 석유화학업체 관계자는 "우리 기업이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그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여수산단에는 석유화학 기업 120개사를 비롯해 301개사가 입주해 있다. 정유사인 GS칼텍스가 국내처리능력의 24%인 하루 80만배럴의 원유를 정제하고 있으며, LG화학·롯데케미칼·한화케미칼·여수NCC 등 석유화학 기업들은 에틸렌 기준으로 국내 총생산능력의 46%인 연간 436만t을 생산하고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MB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

"1심 징역 15년 너무 가벼워"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총 23년의 징역형과 320억원의 벌금형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우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에 벌금 250억원, 추징금 163억여원을 구형했다.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구형을 둘로 나눠 한 것은,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에 관해 받은 뇌물죄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날 검찰의 총 구형량은 1심에서 구형한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보다 상향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이 1심보다 50억원 이상 불어났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포함해 총 110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난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2월 19일 오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란, 美 향해 "강력한 보복은 계속 될 것"

전면전 가능성 적지만 친이란 세력 가담하면 대리전 될수도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로 세계의 '화약고' 중동 정세가 다시 격랑에 빠졌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8일(현지시간) 새벽 미군이 주둔한 이라크 아인 알아사드 공군기지 등에 지대지 탄도미사일 수십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혁명수비대는 이날 공격이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쿠드스군(이란혁명수비대 정예군) 사령관을 숨지게 한 미국을 향한 보복 작전이라며 "강력한 보복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미군 공습으로 사망한 뒤 닷새 만에 이란이 본격적인 보복에 나선 셈이다. 또 알리 샴커니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이 7일 미국을 겨냥한 보복시나리오 13개를 고려한다고 밝힌 지 불과 하루 만이다. 이란은 보복 위협이 단지 '말'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빠르게 보여줬다.

강대국 미국과 중동의 군사강국 이란의 전면전 가능성은 당장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양국이 전면전을 벌일 경우 엄청난 인명피해를 피하기 어렵고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도 미국에 '비례적' 공격을 지시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란의 이번 공격에 대한 미국의 재반격 수준 등에 따라 군사적 충돌이 격화될 우려가 있다.

이란이 검토할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다. 걸프 해역의 입구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30%를 차지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주요 산유국이 아시아, 유럽 쪽으로 원유를 수출하는 길목이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차단할 경우 원유 수송 경로가 막히면서 중동은 물론, 전 세계에 미치는 정치·경제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 큰 문제는 포성이 중동 곳곳으로 번질 위험성이다. 이란은 이슬람 시아파 맹주로 오랫동안 중동 여러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며 친이란 세력을 구축해왔다. 레바논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하마스 등 이란과 밀접한 무장정파들이 보복공격에 동참할 수 있다.

이 조직들의 표적은 중동에서 미국의 우방인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될 공산이 크다. 친이란 세력이 미국 우방을 공격하면 중동 정세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 수 있다.

반대로 그동안 신중한 행보를 펴온 이스라엘, 사우디 등이 미국의 대(對)이란 군사작전을 적극적으로 도울 경우에도 상황은 복잡해진다. 중동 곳곳에서 친미 성향의 국가들과 이란과 밀접한 무장정파 간 '대리전'이 빈발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8일 미군이 주둔하는 이라크 군기지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미국의 우방은 우리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미국의 반격에 가담하면 그들의 영토가 우리의 공격 목표가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靑, 이란 상황 예의주시
교민 안전 만반의 준비

미국의 이란 군부 실세 제거와 이란의 미군 기지에 대한 보복 공격으로 미·이란 간 전면전 우려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8일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이란 상황과 관련해 교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외교부가 중심이 돼 현지 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청와대는 현재 상황을 시시각각 보고받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현지 한국 국민과 기업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중동이 한국의 원유·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서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그 영향을 최소화하고 인근을 운항하는 선박 안전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 대변인은 이후 브리핑에서 "지금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교민의 안전 문제와 경제에 미칠 영향"이라며 "교민의 안전과 관련해 이미 많은 조치가 이뤄졌다. 여러 경우의 수를 두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국내서 '중국 원인불명 폐렴' 증상환자 발생

지난달 우한시 방문 中 여성…질본, 위기단계 '관심'

질병관리본부는 중국에서 집단으로 발생한 원인불명 폐렴과 관련해 국내에서 관련 증상을 보인 환자(유증상자) 1명이 발생했다고 8일 밝혔다.

증상을 보인 환자는 중국 국적의 여성(36)으로 질본은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하고 격리치료와 검사를 하고 있다.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중국 우한시를 방문하고 14일 이내에 폐렴이 발생한 경우다.

이 여성은 현재 국가지정입원 치료병상인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상태는 양호한 수준이다. 기초 역학조사 결과 이 여성은 지난해 12월 13~17일 회사 업무로 직장동료 1명과 함께 중국 우한시를 방문했다. 감염 경로로 지목된 우한시 화난 해산물 시장을 방문하거나 야생동물을 접촉한 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한시에서 입국한 이후인 지난달 17~25일에는 국내에 체류했으며, 같은달 26~30일 중국 샤먼으로 출장을 갔다 귀국했다.

지난달 31일부터 기침과 목이 붓는 증상이 나타났으며 이달 2~3일 기침, 발열로 오산한국병원을 방문해 감기약을 처방받았다. 당시 흉부방사선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정상이었다. 이후 6일 동탄성심병원을 방문해 흉부방사선 검사를 추가로 받았으며 검사 결과는 정상으로 나왔다. 계절 인플루엔자 검사도 음성으로 확인됐다. 다음날인 7일 병원을 다시 방문했을 때는 폐렴 소견이 확인돼 질본에 신고됐다. 질본은 현재 폐렴 유발 원인 병원체에 대한 검사와 동반 여행자 및 접촉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접촉자는 해당 보건소가 발병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시행한 이 여성의 호흡기바이러스 9종에 대한 검사는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한편 질본은 이날 이날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사람 간 전파나 의료인 감염의 증거가 없다는 중국 보건당국 발표를 근거로 위기단계를 '관심'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요양병원, 힐링센터 부/지/매/매

■ 풍암동, 화순 전대병원 10분거리
■ 현재 한옥식당 및 찜질방
■ 계획관리지역 약3000평 (용적율 40% / 100)
■ 보존관리지역 약2500평 (편백나무숲, 산책로 조성가능)
■ 매매가격 33억5천만원 (융20억포함)

힐링센터 공동투자자 모심

■ 개인명의 재산을 법인으로 100% 전환 후 지분 50:50
■ 공동대표 등기 후 투자자께서 100% 운영
■ 투자금액 13억5천만원 (힐링센터 시설 리모델링 비용)

소유자 : 010-7570-7525
(나주시 남평읍 풍림죽림길 8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매도·교환
• 월산동 돌고개역 인접 소방도접 2층 주택 땅 106㎡ 집 112㎡ 공방등 적합 1억3천
• 전원주택 적합 영광군 백수해안도 인근 1130㎡ 전망 좋음 1억3천
• 서구 마륵동 도로접 땅 378㎡ 장기투자에 좋음 대지임 5억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땅 664㎡ 주택 124㎡ 4억3천
• 전북 부안군 백산면 소재지 상업지 706㎡ 무인텔 등 적합 교환 가능 2억
• 목포시 외달도(달동) 329평, 638평 투자전망최고 평당 23만원
• 화순 능주면 소재지 땅 2612㎡ 전원생활최적합 2억7700
• 함평군 손불면 산남리 땅 9143㎡ 집 67㎡ 귀농생활 적합 2억
• 별장 영산강 부근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땅 450㎡ 건평 110㎡ 매도 2억8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공장 등 적합 6억
•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3647㎡ 빌라 등 적합 약국용 건물과 교환 가능 20억
•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915㎡ 창고·다세대 등 다용도 적합 2억9천
• 남구 덕남동 (노대동 노인건강타운) 부근 대지 652㎡ 남향 가격조정 가능 5억5천
• 남구 덕남동 산10000㎡ 사찰·화가 화실·작가 작품 활동 적합 건물 67㎡ 5억

상가건물
• 백양사와 내장사 사이 추령고개 땅 403㎡ 가게 197㎡ 커피숍·편의점 적합 1억3500
• 서석동 조대앞 4층 상가 땅 405㎡ 건물 919㎡ 임대 보증금 6천 월 280, 12억
• 운암동 아파트상가지하 205㎡ 매입 2억 창고 사무실 적합 은행7천 매도1억6천
• 충장로4가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1200 매도 26억
• 월산동 농성초교 도로접 땅 190㎡ 2층 상가주택 185㎡ 매도 3억
• 운암동 아파트 단지 인근 땅 1124㎡ 건물 1733㎡ 전세 7천 월 680 임대 21억
• 유동 신축커피숍 대지 73㎡ 2층건물 30평 시설완비 은행 1억 매도·교환 3억6천
• 북구 임동 모텔 땅 318㎡ 건평 5층 528㎡ 은행 2억3천 매도 6억천

특급물건
• 함평 해보면 땅 14072㎡ 농장 등 적합 4억2천 조건·가격은 상의함
• 목포대 부근 청계면 도림리 2종주거지 답 4413㎡ 감정 5억7천 농협 4억3천 매도 1억천
• 화순군 동면 서성제 무등산 밑 광주 인근 최고별장지역 은행 2~3억 있는 별장과 상가건물·원룸·나대지 등과 교환원, 매도는 5억~7억임
• 나주시 남내동 상업지 959㎡ 마트·식당·다가구 적합 은행 5억 교환가능 9억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이웃을 위한 따뜻한 손길
어르신 돌봄은행이 함께합니다!

"이제는 자원봉사도 저축이 된다"

어르신 돌봄은행이란?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돌봄활동을 제공하면 이를 돌봄포인트로 적립·관리하고, 만 65세 이후에 본인·가족·제3자가 돌봄활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돌봄봉사자 모집
- 돌봄봉사자 자격 : 만13세이상, 2인 1조 활동 권고, 4시간 교육 필수(교육시간도 포인트 혜택)
- 돌봄봉사자 혜택
  - 돌봄활동 1시간당 1포인트 적용(적립 및 사용)
  - 돌봄활동 시간 VMS 연계 적립
  - 돌봄포인트 적립 시 의무기부 20%
  - 적립한 포인트는 가족과 제3자에게 기부 가능
- 돌봄활동 범위
  - 인지활동·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택안전관리 등
- 돌봄봉사자 기초관리교육 : 수시 모집

돌봄대상자는?
- 어르신 돌봄은행에 회원등록한 만65세이상의 어르신 중 전문가가 돌봄활동 제공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자이거나, 만 40세 이후 본인이 적립한 돌봄포인트와 기부받은 포인트의 합계가 100포인트 이상인 어르신
- 돌봄서비스 범위 : 인지활동·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택 안전관리 등

CCC 동구노인종합복지관 www.noin.or.kr ☎ 062-232-4953

1688-3579
(전국 50개 시군구소재)

보건복지부 SSN 한국사회복지협의회